

광주시, '갬코' 진상규명 민간조사위 구성

변협·민변·대학교수 등 10여명

오늘 첫 회의... 향후 일정 논의

"구상권 청구 사전 준비" 분석도

광주시가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학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회는 갬코 사건과 관련한 백서 제작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동안 광주시에서 자체 조사해온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갬코 사건을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갬코 사건에 대해서

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상권 청구(공소시효 10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가 그 첫 준비 단계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경우 갬코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은 조급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능 단체 위주의 전

문가로 구성해 진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번 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5기 때 발생한 갬코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국제 사기 사건으로, 시는 최근 해당 업체의 보유 자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송을 끌고 가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포기를 결정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눈길끄는 전남도·광양시

LF 아울렛 개설 지원

광양시에 들어설 LF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과 관련 투자이행협약(MOA) 후 100여일 만에 광양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를 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가 투자유치를 결정된 뒤 TF팀을 구성하고, 광양시는 보상업무 지원에 나서 상당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미리 동의서를 받는 등 신속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아울렛 부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주들은 이례적으로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상승한 토지 가격으로 보상받고, 광양지역 소상공인이 아울렛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19일 "최근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광양시가 관계 서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주

이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 면적은 도면적이며 면적이 늘면서 당초 9만3098㎡에서 9만7826㎡로 4728㎡가 증가했으며, 사업 준공일은 2015년 말로 돼 있다. 수용될 토지는 모두 159필지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아울렛에는 250개의 매장장과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광양시와 전남도는 투자업체인 LF 측과 전남도 TF팀을 구성해 사전에 이 같은 문제들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통상적인 투자양해각서(MOU)가 아니라 이행협약을 맺으면서 혼선을 최소화했으며, 인근 하천 등 자연환경과 연계된 설계는 물론 광양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주 등의 조건도 관철시켰다.

또 광양시는 LF 측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토지소유자 168명 가운데 137명(82%)의 동의서를 받아 업체와 토지소유자 간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 및 지역민 혜택과 업체의 정상적인 투자를 동시에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 개성서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

정부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협의를 위해 이 여사측이 신청한 북측 관계자와의 실무접촉을 위한 개성 방문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와 관련해 이희호 여사 측 관계자 7명의 21일 개성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고교 신입생 배정 무원칙"

조오섭 시의원, 일부 학교에 최상위권 학생 집중배치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 공사립 고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성적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 강행했으나 사실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사립 학교에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데다 편차도 극심해 균등 배정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새정치·북구 2) 의원은 19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올 고교 신입생의 학교별 내신등급(중학교)을 분석한 결과 상위 2% 이내 학생 수가 최대 16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고교 일부 선택제' 방식을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0~8%, 8~80%,

80~100%로 3개 구간으로 크게 나눈 뒤 다시 9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배정하는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등급으로 분류되는 0~4%(1등급)까지의 학생 수가 학교·공사립 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

공립에서 배정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22명인 반면 적은 곳은 3명에 불과했다. 사립에서도 23명이 배정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6명에 그친 학교도 있는 등 편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2% 이내 학생 배정 현황을 볼 때 달랑 1명에 불과한 학교가 3곳이 있는가 하면 고교 1곳에는 무려 16명이나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 학생 수가 3명 이내 학교는 12곳, 4~7명은 17곳, 8~11명은 12곳, 12명 이상은 5곳이다. 또한, 상위 1% 이내의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급

조세철 시의원 주장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세철(새정치·동구 2) 의원은 19일 제23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 전체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가 지난 2010년 10월, 동구를 14만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경계조정을 추진했으나 겨우 인구 5068명을 늘리는 데 그치는 등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동구인구는 10만4000여명, 북구 45만 여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결정을 거울 삼아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도시·도시재생 특위 구성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19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문화도시 특별위원회'(이하 문화도시 특위)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 특위)를 구성했다.

문화도시특위는 임택·김동찬·문태환·서미정·이미옥·이은방·조오섭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 강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특위는 반재신·김옥자·문상필·박춘수·이정현·전진숙·조세철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 특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도시재생의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반도가 들고 행진하는 한·중·일 스님들 기원 법회를 앞두고 행진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학교에서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 및 세계평화

/연합뉴스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이고, 구도청, 밀리오리, 대인파출소, 새마을은행, 광주전, 대안광장, 대안역, 유동

총장지점: 구도청, 중파, 우리은행, 신상명, 광주일고, 유동, 누분동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설명회

- 신 개발지 실전 투자 설명회 -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도 가능한 복합수익형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참거리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대안엔 집중 분석

일정과 장소

- 2014.11.21(금) 오후 2시~4시
- 첨단 2지구 북광주 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J타워 3층
- 예약 문의 :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J타워 첨단 2단지

김영돈 대표 박종락 대표

-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강사
-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 전남지방경찰청 외래교수
-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대표
- (주)해남농장 대표이사

※ 꿈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〇명을 모집합니다.